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이 남성 소비자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미 숙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

###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Male Consumer'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Mi-Sook Le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4. 8. 8. 접수; 2014. 9. 17. 수정; 2014. 9. 22.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male consumer'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subjects were 648 males aged from 20 to 59 years old, an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 ,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ree dimensions (appearance importance awareness, slimness importanc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were emerged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Three dimensions (body shame, body surveillance, and control belief) were emerged o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Five dimensions (skin, hair, body, fashion, and plastic surgery management) were emerged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dimensions, appearance importanc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had important effect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dimensions, body shame and control belief had important effect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is results concluded that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re important variables to understand on male consumer'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Key Words:**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객체화 신체 의식),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외모관리 행동), Male consumer(남성 소비자)

#### I. 서론

현대 사회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외모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중요

한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형성되면서 외모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성역할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외모와 패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Lee

Tel. +82-41-850-8302, Fax. +82-41-850-8301

E-mail : evanms@kongju.ac.kr

는 남성 소비집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안현주, 박민여, 2007),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미국에서도 패션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남자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명품백화점에서는 남성들을 겨냥한 의류와 구두, 화장품 매출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박진호, 2014). 이와 같이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나, 한국 남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다. 한국은 소수의 인구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고급 남성화장품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의류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남성은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보여, 신세계백화점 남성전문관의 편집매장인 ‘멘즈 컬렉션’은 개장 이후 매출이 45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김남인, 2012). 또한 시장조사기간인 유로모니터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남성 1인당 화장품 소비규모는 2위인 덴마크의 3배에 달하는 등 한국 그루밍족의 1인당 외모관련 소비규모는 세계 1위로 나타났다(박소희, 2014).

한국 남성들이 이처럼 외모관리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렛미인’, ‘갯 잇 뷰티’, ‘옴므’ 등 외모와 관련된 다양한 TV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일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적 환경이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진 것으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을 들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제시되는 그 사회의 이상적인 미적기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수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개념으로써, 패션연출, 체형관리, 메이크업, 성형수술과 같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박광희, 2012; 황윤정, 유태순, 2010; Cusumano & Thompson, 1997). 한편, 객체화 신체의식은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이상적인 신체표준을 내면

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을 전인격적 주체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관찰하고 이용할 객체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Mackinley & Hyde, 1996). 선행연구 결과, 객체화 신체의식이 높으면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부정적 감정이 증가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객체화 신체의식은 신체 및 외모관련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완석 외, 2007; 김윤, 2007; 안나영, 2007; Kretchmar, 2001; Noll & Fredrickson, 1998).

그러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남성에 대한 연구들도 청소년이나 20~30대의 젊은 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40~50대의 중년층도 외모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모관련 산업에서 중요한 소비주체로 부상하고 있다(강진규, 2013). 따라서 보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객체화 신체의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성인 여성(안나영, 2007; 전정혜, 유태순, 2011; 전현진, 정명선, 2011), 남녀 청소년(구자연, 2010; 임보형, 2010), 남녀 대학생(김완석 외, 2007), 18~29세의 성인 남녀(김윤, 2007)를 대상으로 소수의 연구만이 수행되었으며, 폭넓은 연령층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50대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은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인 매스미디어를 통해 제시되고 강화된다.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미적기준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가치기준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상적인 외모와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개인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제시된 그 사회의 이상적인 미적기준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기준으로 내면화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개념으로써 신체이미지, 자아개념, 외모관리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Thompson & Heinberg, 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녀 청소년(이나현, 류은정, 2011; 이미숙, 2013; 임보형, 2010)이나 대학생(박은희, 구양숙, 2012; 황윤정, 유태순, 2010), 20~30대 남녀(이승희, 이시원, 2009)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을 뿐,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수정, 2010)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홍금희, 2006; Sinclair, 2006), 특히 내면화 요인이 외모관리행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이상적인 외모를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내면화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의 빈도가 증가하고(박광희, 2012), 헤어 및 피부관리, 체중조절, 성형수술 등에서 더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안나영, 2007). Cusumano and Thompson(1997)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개인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내재화하는 정도에 의해 매개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연옥(2006)은 20~30대 남성들은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의 경로가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남수정(2010)은 20~40대 남성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피부관리, 화장품, 헤어, 액세서리 구입 등의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수행한다고 하였다.

### 2. 객체화 신체 의식

객체화 이론에서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되면 외모에 대한 습관적인 감시와 통제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객체로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McKinley and Hide (1995)는 이처럼 객체로서 자기신체를 바라보는 심리적 경험을 ‘객체화 신체 의식’이라고 지정하고, 객체화 신체 의식을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하여 타인의 시선으로 감시하듯이 바라보는 신체감시성, 사회문화적인 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감정적 반응인 신체수치심,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신체외모를 바꿀 수 있다는 통제신념의 3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객체화 신체 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최근 남성들도 자신의 신체를 객체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Morry & Staska, 2001; Murnen, 2003), 남성의 객체화 신체 의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trelan and Hargreaves(2005)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체화 정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김완석 외(2007)의 연구에서도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에서 뚜렷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객체화 신체 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현진과 정명선(2011)은 객체화 신체 의식 차원 중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은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제신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체수치심이 신체감시성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보였다고 하였다. 18~29세의 남녀를 조사한 김윤(2007)은 객체화 신체 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졌다고 하였다. 남녀 청소년을 조사한 임보형(2010)의 연구에서는 신체수치심과 신

체감시성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였는데, 통제신념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학생은 통제신념이 낮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반면 여학생은 통제신념이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안나영(2007)의 연구에서 20~60세 성인 여성들은 객체화 신체의를 높게 지각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수행하였고 특히 체중조절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객체화 신체의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보다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혜와 유태순(2011)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공격 자기의식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객체화 신체의식은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니며, 3변인 중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개성을 표현해가는 과정으로, 개인은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복을 통한 패션연출, 체형관리, 헤어관리, 피부관리, 메이크업, 성형수술 등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한다(김현정, 이명희, 2012; Kaiser, 1990). 과거에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관리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이 두드러지고 외모관련 산업에서 이들이 갖는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민정과 박혜란(2010)은 20~30대 남성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체형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근육질의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이나 식이요법, 체중관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우지영(2005)의 연구에서도 20~30대 남성의 88.3%가 체형관리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

진과 박길순(2008)은 20~30대 남성들은 체형 및 몸매관리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피부 및 화장품사용, 패션, 헤어관리, 성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화된 외모관리행동은 피부 및 화장품 사용이었고, 외모연출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의복과 헤어스타일이었다. 정의정(2011)의 연구에서 20~50대 남성의 외모관리 중 중요한 부분으로는 의복, 헤어, 체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패션을 중시하는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형과 헤어관리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구양숙 외(2010)는 20~50대 남성은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를 포함한 몸매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피부관리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외모 개선이나 성형 등의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에는 아직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광희와 유화숙(2010)은 성인 남녀는 외모관리행동 중 몸매관리를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피부/의복관리, 헤어관리, 성형수술 순이었으며, 40~50대도 외모관리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학력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외모관리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고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50대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소비자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본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과 대전,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20~59세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총 648명의 피험자를 선정하였으며,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과 피험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대한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문항은 Heinberg et al.(1995)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SATAQ)를 토대로 10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는 .67~.74였다. 객체화 신체의식 측정문항은 김완석 외(2007)가 남녀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를 토대로 15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는 .61~.81이었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측정문항은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구양숙 외, 2011; 김민정, 박혜란, 2010; 우수진, 최근희, 2011)를 토대로 20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는 .61~.82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 측정문항은 의류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5명과의 토론을 통해 측정문항의 내용타당성을 확인하고 문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5점의 Likert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한편,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으로는 연령, 학력,

<표 1>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n(%)	항 목		n(%)
연령	20~29세	158(24.4)	결혼 여부	미혼	277(42.7)
	30~39세	161(24.8)		기혼	356(54.9)
	40~49세	166(25.6)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	15( 2.3)
	50~59세	163(25.2)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7(21.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02(15.8)		200~300만원 미만	154(23.8)
	대학교 재학 및 졸업	472(72.8)		300~400만원 미만	132(20.4)
	대학원 졸업	74(11.4)		400~600만원 미만	138(21.3)
직업	학생	98(15.1)	600만원 이상	87(13.4)	
	사무직	264(40.7)	한 달 용돈	20만원 미만	142(21.9)
	전문직	34( 5.2)		20~30만원 미만	140(21.6)
	경영관리직	64( 9.9)		30~40만원 미만	146(22.5)
	판매·서비스직	77(11.9)		40~60만원 미만	90(13.9)
	생산·기술직	69(10.6)		60~100만원 미만	79(12.2)
	무직·기타	42( 6.5)		100만원 이상	51( 7.9)

직업, 결혼여부, 월소득, 용돈 등이 포함되었으며, 선다형식(multiple choice)으로 제시하였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3. 8. 16~23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총 66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48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Ver. 20.0)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20~50대 성인 남성 소비자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

며 총 설명력은 67.52%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와 같이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외모 중요성 인식’으로 명명하였으며 24.14%의 설명력을 보였다. 두 번째 요인은 ‘나는 패션모델이나 유명 연예인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곤 한다’, ‘대중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 외모를 보여준다’와 같이 사회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신체 기준을 내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내면화’로 명명하였으며 22.75%의 설명력을 보였다. 세 번째 요인은 ‘사람들은 마를수록 옷맵시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미적 기준으로서 날씬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날씬함 중요성 인식’으로 명명하였으며 20.62%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요인으로 인식과 내면화의 2요인이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매력적인 미적기준에 대한 성차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즉, 여성의 경우는 날씬함이 이상적인 외모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반면 성인 남성의 경우는 지나치게 마른 몸매보다는 근육이 발달된 건장한 신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표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구성차원

요인명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계수	평균
외모 중요성 인식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84	24.14 (24.14)	.74	3.80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은 몸매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	.84			
내면화	나는 패션잡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77	22.75 (46.89)	.67	3.25
	나는 패션모델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곤 한다.	.74			
	TV나 영화에 나오는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60			
날씬함 중요성 인식	대중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 외모를 보여준다.	.52	20.62 (67.52)	.73	3.34
	사람들은 마를수록 옷맵시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90			
	옷은 마른 모델들이 입어야 더 멋있어 보인다.	.83			

\* 점수의 해석을 위해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문항임

높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다른 체형이 이상적이라는 인식이 동일한 차원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차원으로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성인 남성의 외모 중요성 인식, 내면화, 날씬함 중요성 인식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의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내면화경향이 높고, 미적기준으로써 날씬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외모 중요성 인식이 3.80, 내면화가 3.25, 날씬함 중요성 인식이 3.34로 나타나 3요인 모두 중간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외모 중요성 인식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남성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깊게 형성되어 있

으며, 날씬함이 중요한 미적기준임을 알고 있으나 외모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였고, 성인 남성들도 비교적 매스미디어를 통해 제시되는 현대사회의 미적기준을 내면화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도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를 보통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윤(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2. 객체화 신체이식

객체화 신체이식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8.15%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진다’

<표 3> 객체화 신체이식의 구성차원

요인명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계수	평균
신체 수치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진다.	.82	24.56 (24.56)	.81	3.08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77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 때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76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72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	.64			
신체 감시성	나는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는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	.76	19.35 (43.91)	.72	3.06
	나는 내 외모보다 신체 상태를 더 많이 생각한다.*	.73			
	나는 내 걸모습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71			
	나는 내 걸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교하지 않는다.*	.69			
통제 신념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원하는 몸무게가 될 수 있다.	.74	14.24 (58.15)	.61	3.72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멋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67			
	나는 사람들의 외모는 타고난 것이어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65			
	나는 사람들의 몸무게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57			

\* 점수의 해석을 위해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문항임

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신체수치심’으로 명명하였으며 24.56%의 설명력을 보였다. 두 번째 요인은 타인에게 보여 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고 자신의 외모를 타인과 비교하여 관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신체감시성’으로 명명하였으며 19.35%의 설명력을 보였다. 세 번째 요인은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원하는 몸무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멋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통제신념’으로 명명하였으며 14.24%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완석 외, 2007; 김운, 2007; 안나영, 2007; 임보형, 2010; 전현진, 전명선, 2011)에서 객체화 신체 의식 요인으로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통제신념의 3요인이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성인 남성의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통제신념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의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인 미적기준과 비교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끄러워하고, 타인에게 보여 지는 자신의 모습을 감시하며, 자신이 노력하면 외모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신체수치심이 3.08, 신체감시성이 3.06, 통제신념이 3.72로 나타나, 성인 남성들은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은 중간 정도이나 통제신념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객체화 신체 의식 각 요인별 평균점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본 연구결과와의 정확한 비교는 무리가 있었다. 한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구자연, 2010; 임보형, 2010)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이 높은 반면 통제신념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나(임보형, 2010), 객체화 신체 의식은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을 조사한 구자연(2010)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의 신체감시성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신체수치심은 높은 수준인 반면, 고등학생을 조사한 임보형(2010)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의 신체감시성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구자연(2010)과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나, 신체수치심은 중간보다 많이 낮게 나타나 세 연구결과 간에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남성의 객체화 신체 의식을 이해하고 신체감시성에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외모관리행동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의 5차원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73.18%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의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피부, 헤어, 체형, 의복, 성형관리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성인 남성들은 새로운 유행스타일의 옷이나 액세서리 구입 등의 의복관리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나 운동 등의 체형관리행동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 헤어스타일의 변화, 퍼머나 염색 등의 헤어관리행동이었고,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 팩이나 마사지, 자외선 차단제, 기초화장품 사용 등의 피부관리행동도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의 성인 남성들은 외모관리행동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비교적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형관리행동은 중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성인 남성들은 성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남성의 외모 연출시 가지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의복관리행동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된 선행연구(박수진, 박길순, 2008; 정의정, 2011)와 20~50대 남성들은 외모개선이나 성형 등의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에는 아직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구양숙 외(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4> 외모관리행동의 구성차원

요인명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계수	평균
피부 관리	나는 피부관리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 탄력 등)을 사용한다.	.83	20.23 (20.23)	.82	3.35
	피부관리를 위해 집에서 팩이나 마사지를 한다.	.75			
	밖에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68			
	피부보호를 위해 매일 기초화장품(스킨, 로션)을 바른다.	.57			
헤어 관리	나는 헤어스타일링 제품(무스, 스프레이, 젤)을 자주 사용한다.	.82	18.41 (38.64)	.79	3.56
	나는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하거나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는데 관심이 많다.	.80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퍼머나 염색을 자주 하는 편이다.	.74			
체형 관리	체중조절을 위해 다이어트방법(절식, 단식, 다이어트식품 등)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	.81	14.65 (53.29)	.75	3.68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찌는 음식은 자제한다.	.77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평소 저칼로리 음식을 선호한다.	.76			
	나는 몸매관리를 위해 헬스, 조깅 등의 운동을 한다.	.62			
의복 관리	나는 자주 새로운 유행스타일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구입한다.	.78	10.02 (63.31)	.64	3.83
	나는 옷에 맞춰 액세서리(가방, 신발 등)를 코디하는 편이다	.76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71			
	체형보정을 위해 기능성 속옷이나 키높이 구두를 착용한다.	.59			
성형 관리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83	9.87 (73.18)	.61	2.27
	남자도 외모를 위해 필요하다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6			
	나는 멋진 외모를 위해 앞으로 성형을 할 의향이 있다.	.63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법(stepwise)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외모의 중요성 인식과 내면화성향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홍금희, 2006; Sinclair, 2006)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진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헤어, 체형, 의복관리에서는 외모 중요

성 인식과 내면화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표준화 회귀계수( $\beta$ )를 고려해볼 때 외모 중요성 인식이 내면화보다 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은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의 경로가 달라진다고 한 신연옥(2006)과 남자는 외모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내면화보다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임보형(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박광희, 2012; 안나영, 2007; Cusumano & Thompson, 1997)에서 외모에 대한 인식보다는 내면화가 외모관리행동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표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표준오차	$\beta$	t	R <sup>2</sup>	F
피부관리	외모 중요성 인식	.24	.043	.23	5.60***	.10	35.76***
	내면화	.15	.043	.15	3.56***		
헤어관리	외모 중요성 인식	.25	.042	.24	5.94***	.10	34.45***
	내면화	.12	.042	.12	2.93**		
체형관리	외모 중요성 인식	.26	.041	.25	6.25***	.13	46.71***
	내면화	.17	.041	.17	4.24***		
의복관리	외모 중요성 인식	.21	.038	.22	5.43***	.11	39.70***
	내면화	.16	.038	.17	4.29***		
성형관리	내면화	.31	.061	.20	5.01***	.07	24.55***
	낯선함 중요성 인식	.14	.046	.12	3.05**		

\*\*\* p<.001

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형관리에서는 다른 외모관리행동에서 외모의 중요성 인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르게 내면화와 낯선함 중요성 인식의 2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내면화가 낯선함 중요성 인식보다 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는 의복, 피부, 헤어, 체형 등의 외모관리행동과 성형관리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효과적인 변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낯선함 중요성 인식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 중 성형관리에만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피부, 헤어, 체형, 의복관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성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미적기준으로써 낯선함의 중요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5.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법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부, 체형, 성형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의 2요인이, 헤어와 의복관리에서는 통제신념,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의 3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객체화 신체의식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피부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피부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였으며, 표준화 회귀계수( $\beta$ )를 고려할 때 신체수치심이 통제신념보다 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헤어관리에서는 통제신념,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이 높을수록 헤어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신념과 신체수치심에 비해 신체감시성은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관리에서는 통제신념과 신체수치심이 높을수록 체형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관리에서는 통제신념,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이 높을수록 의복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요인 중 특히 통제신념이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성형관리

〈표 6〉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표준오차	$\beta$	t	R <sup>2</sup>	F
피부관리	신체수치심	.28	.036	.29	7.77***	.14	52.49***
	통제신념	.28	.044	.24	6.42***		
헤어관리	통제신념	.31	.043	.27	7.26***	.15	38.93***
	신체수치심	.24	.036	.25	6.67***		
	신체감시성	.08	.039	.08	2.07*		
체형관리	통제신념	.36	.042	.31	8.71***	.18	69.92***
	신체수치심	.27	.034	.28	7.72***		
의복관리	통제신념	.33	.039	.31	8.51***	.16	39.89***
	신체수치심	.13	.033	.14	3.89***		
	신체감시성	.13	.035	.14	3.66***		
성형관리	신체수치심	.46	.052	.32	8.91***	.16	59.49***
	통제신념	-.41	.063	-.24	-6.58***		

\*\*\* p&lt;.001

서는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신체수치심은 정적인 영향을, 통제신념은 부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 남성은 신체수치심이 높고 통제신념이 낮을수록 성형관리행동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수치심이 통제신념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객체화 신체의식 요인 중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은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신체감시성은 헤어관리와 의복관리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2요인에 비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전현진, 정명선, 2011)와 비교해보면 신체수치심이 신체감시성보다 외모관리행동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보인 것과는 일치하나,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은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통제신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피부, 헤어, 체형, 의복관리행동을 많이 수행한 반면 성형관리에서는 통

제신념이 낮을수록 성형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모관리행동에 따라 통제신념의 영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피부, 헤어, 체형, 의복관리에서는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자신의 외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보이는데 반해, 성형관리에서는 통제신념이 낮을수록 즉,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거나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성형을 통한 더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신념이 높으면 보다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한다고 한 Mckinley and Hide(1996)와 통제신념이 낮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임보형(2010)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두 선행연구는 외모관리행동을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통제신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표 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표준오차	$\beta$	t	R <sup>2</sup>	F
외모관리 행동	객체화 신체 의식	.35	.04	.33	8.68***	.28	127.4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25	.03	.28	8.15***		

\*\*\* p&lt;.001

## 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 의식이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피부, 헤어, 체형, 의복, 성형관리행동을 합산한 평균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3요인을 합산한 평균점수와 객체화 신체 의식 3요인을 합산한 평균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선택법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 의식은 성인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표준화 회귀계수를 고려해볼 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보다는 객체화 신체 의식이 성인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체화 신체 의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함께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성인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변인이라고 여겨진다.

## V. 결론

본 연구는 20~50대 성인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 신체 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 의식이 외모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남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 중요성 인식, 내면화, 날씬함 중요성 인식의 3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인 남성은 외모의 중요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였고 날씬함 중요성 인식과 내면화도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객체화 신체 의식은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통제신념의 3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인 남성의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은 중간 수준인 반면 통제신념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모관리행동은 피부, 헤어, 체형, 의복, 성형관리의 5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인 남성은 의복관리를 가장 많이 수행하였고 그 다음으로 체형, 헤어, 피부관리의 순으로 외모관리를 많이 수행하였으나 성형관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주어 피부, 헤어, 체형, 의복관리에서는 외모 중요성 인식과 내면화 요인이, 성형관리에서는 내면화와 날씬함 중요성 인식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객체화 신체 의식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주어 피부, 체형, 성형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이, 헤어와 의복관리에서는 통제신념,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 의식은 성인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객체화 신체 의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보다 외모관리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결론으로는 첫째, 성인 남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구성차원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제시된 이상적인 미의 기준,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나 환경

적인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성인 남성, 특히 중년층 이상의 연령층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40~50대 성인 남성도 외모 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모관련 산업의 주요 소비자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외모관리행동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타당성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밝히기 위한 양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성인 남성의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성의 객체화 신체의식을 조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 객체화 신체의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보다도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었으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과 대전, 충남지역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첫째, 성인 남성의 객체화 신체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객체화 신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인 변인이 무엇이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둘째, 한국이 세계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권에 걸친 비교문화연구가 수행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징을 파악하고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진규. (2013. 12. 17). 아저씨라니... '젊은 감각'에 지갑 여는 40대. 한국경제. 자료검색일. 2014. 7. 2. 자료출처 <http://hankyung.com>
- 구양숙, 이영주, 추태귀. (2011).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II) -외모관리행동 집단 간 외모관리동기 및 신체이미지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1), 91-99.
- 구양숙, 이영주, 추태귀. (2010).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I)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4), 459-466.
- 구자연. (2010).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Y)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인. (2012. 3. 9). 치장하는 남자들... 쇼핑 주류로 부상. 조선비즈. 자료검색일. 2014. 7. 2. 자료출처 <http://biz.chosun.com>
- 김민정, 박혜란. (2010). 20-30대 남성 소비자의 외모관리 유형화와 패션라이프스타일, 정보원 활용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36, 105-122.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29-349.
- 김윤. (2007).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 이명희. (2012). 남녀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2), 33-47.
- 남수정. (2010). 성역할정체성,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메트로섹슈얼 소비.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91-102.
- 박광희. (2012). 인지연령,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6(7), 756-766.
- 박광희, 유화숙. (2010).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간의 인과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0(1), 51-63.
- 박소희. (2014. 7. 2). 한국 남성 '꾸미기' 열풍...그

- 루밍족 1인당 소비규모 세계 1위. MBC 뉴스 자료검색일. 2014. 7. 4. 자료출처 <http://imnews.imbc.com>.
- 박수진, 박길순. (2008).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복식문화연구*, 16(3), 533-546.
- 박은희, 구양숙. (201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 태도가 패션행동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5), 811-820.
- 박진호. (2014. 6. 2). 멋 부리는 남성들...‘여미족’ 늘고 있다. SBS 뉴스. 자료검색일. 2014. 7. 2. 자료출처 <http://w3.sbs.co.kr>.
- 신연옥. (2006). *남성 외모관리행동의 영향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나영.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 박민여. (2007). 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슈얼 이미지에 따른 남성패션 디자인 분석. *한국 의상디자인학회지*, 9(3), 99-113.
- 우수진, 최근희. (2011). 남자 대학生の 헤어, 피부, 메이크업에 관한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7(1), 185-195.
- 우지영. (2005). *20-30대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메트로 섹슈얼 성향과 외모관리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현, 류은정. (2011).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스포츠의류 구매행동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7(4), 351-360.
- 이미숙. (201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존중감과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2), 43-56.
- 이승희, 이시원. (2009). 성별에 따른 공격 자기의식, 신체이미지, 사회문화적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13(5), 45-54.
- 임보형. (2010).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혜, 유태순. (2011). 공격 자기의식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이미지 관리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 *한국의류학회지*, 35(11), 1333-1345.
- 전현진, 정명선. (2011).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신체 존중감이 체중 및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9(6), 1272-1287.
- 정의정. (2011). 성인 남성의 외모관리행동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2), 27-45.
- 홍금희. (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48-54.
- 황윤정, 유태순.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체중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4(11), 1923-1932.
- Bartky, S. L. (1998). Foucault, femininity, and the modernization of patriarchal power. In Diamond, I., & Quinby, L. (Eds.),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s on resist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Cusumano, D. L., & Thompson, J. K. (1997).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s in magazine: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9/10), 701-721.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2nd ed.)*. New York: Macmillan.
- Kretchmar, J. L. (2001).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college-age women of varying physical activity leve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North Carolina.
- MaKinley, N. M., & Hyde, J. S. (1995).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Morry, M. M., & Staska, S. L. (2001). Magazine exposure: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eating disorders,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3*(4), 269-279.
- Murnen, S. K. (2003). Thin, sexy women and strong, muscular men: grade-school children's responses to objectified images of women and men.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49*(9), 427-437.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4), 623-636.
- Sinclair, S. L. (2006). Object Lesson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wome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1), 48-68.
- Strear, P., & Hargreaves, D. (2005). Reasons for Exercise and Body Esteem: Men Responses to Self-objectification. *Sex Roles, 53*, 495-503.
-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